"불교, 한국인의 心性에 깊은 영향"

한국불교사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서

불교 전래 이후 한국인들의 국가관, 윤리관, 생사관, 예술관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집중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5월 3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 전래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기념 및 제10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관 '승가제도 통해 국가체제 정비'

윤세원 인천대 교수는 '불교가 한국인의 국가관에 끼친 영향'에서 "신라의 통일 원동력에는 '전륜성왕사상의 제도화'가 있었다"며 "정치적으로는 호국불교, 종교적으로는 '계율'로 대변되는 승가의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특히 "신라의 불교정치사회사상은 이런 제도화 과정을 통해 통치자가 권력을 담용하거나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는 윤리적 자기성찰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승려 개인이 아닌 승가가 집전하는 의례를 통해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에 부여되기에 승가와 지배계층 모두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선행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윤리관 '불교전래로 후천 노력 중시'

남무희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는 '불교가 한국인의 윤리관에 끼친 영향'에서 "불교는 무교신앙을 대체했는데 당시 현실의 삶이 내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상을 가진 무교와 달리 불교는 현세의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상 전반의 불교영향 고찰
국가 · 생사 · 윤리 · 예술관 조명
"불교 전래로 한국문화 발전"

남 교수는 "이를 통한 윤리관의 정비로 고대 국가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기에 전래 초기 불교는 상위계층에게 더 선호 받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오늘날 불교의 업과 무속신앙의 사주팔자를 분간하지 못하거나 업을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불교의 업은 무속신앙의 사주팔자와는 다르며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의 윤리관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다"고 말했다.

윤세원 교수

남무희 교수

고영섭 교수

장재진 교수

생사관 '정신의 규명이 이타적 삶으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불교가 한국인의 생사관에 끼친 영향'에서 "불교는 자기행위의 주체가 자기자신임을 역설했다. 이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육체는 소멸해도 정신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내세관은 현실의 삶에 대한 긍정과 이타적 베풂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하늘 중심의 무속사상에서 인간 중심의 불교사상을 통해 능동성과 주체성을 갖게 됐으며 이는 사회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술관 '화엄과 법화의 종교성은 예술'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교가 한국인의 예술관에 끼친 영향'에서 "샤머니즘, 유불도의 반영에서 불교만의 영향을 꼽기란 힘들지만 팔관회와 풍류사상 등은 다분히 불교적인 요소였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예와 효가 반영된 〈부모은중경〉과 같이 다양한 한국인의 예술미학과 창작물에 반영된 것은 불교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동시긍정과 부정의 논리가 있으며 화엄과 법화 등의 색채가 예술과 상보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근대사 대표적 신여성 '일엽 스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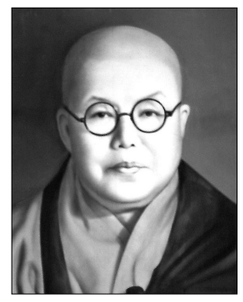
김일엽문화재단, 6월 12일 한서대서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꼽히는 일엽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일엽 스님은 1세대 여성작가이자 개화기의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다.

김일엽문화재단은 일엽 스님〈사진〉의 탄신일(6월 14일)을 앞둔 6월 12일 한서대에서 제1회 김일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늘, 왜 김일엽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방민호 서울대교수의 '김일엽은 누구인가' △유진월 한서대교수의 '김일엽과 콘텐츠 활용 방안' △박진영 아메리칸대교수의 '김일엽, 여성과 불교철학'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 △김주리 한밭대 교수의 '김일엽 문학의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등이 발표된다.

재단은 앞으로 영문판 평전과 전집을 출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기념관 건립, 근대여성문학관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평남 용강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 한국과 일본에서 신학문을 수료한 스님은 1920년대 〈신여자〉를 창간하고 〈신



정조론〉과 〈자유연애론〉으로 대표되는 여성계몽운동을 전개해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러 번의 결혼과 동거 등을 거친 후 1933년 만공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입산 후 절필하고 비구니 총본산인 견성암의 입승(入繩)직을 30여 년간 맡아 참선수행으로 일관했다.

만년에는 덕숭산 수덕사 산내암자인 환희대에서 머물며 대중포교를 위해 〈어느 수도인의 회상〉과 〈청춘을 불사르고〉 등을 펴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제4회 한·중·일 국제불교학술대회

〈대승기신론관〉 대한 삼국학자 논란 다뤄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는 중국 런민대(人民大), 일본 도요대(東洋大)와 공동으로 6월 19~20일 양일간 부여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4회 한 · 중 · 일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승기신론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승기신론〉이 성립된 이래 담연 · 혜원 · 원효 · 법장을 포함한 많은 논사들의 주석서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2012년 시작한 국제불교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금강대)과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중국)을, 제3회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립과 논쟁'(일본)등의 주제를 다뤄왔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권탄준 소장은 "여전히 많은 논쟁점을 가지고 있는 〈대승기신론〉을 집중적으로 다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경전 번역과 디지털화 성과 조명

티벳대장경역경원, 6월 12일 동국대 경주 백주년기념관서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6월 12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5층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한국 근대불교 역경사의 한 단면-용성 금강경 번역과 그 특징', △이방배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티벳대장경 번역어의 선정에 관한 문제', △이재수 동국대 불교문화유산기록사업단 교수의 '불교경전의 제본수집과 번역 그리고 디지털화', △정성준 티벳대장경역경원 전임연구원의 '티벳대장경의 현교와 밀교문헌 비교' 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은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배경아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권기현 위덕대 교수, 양승규 동국대 강사가 맡았다.

원장 진옥 스님은 "한국불교 역경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티벳대장경의 번역연구가 여러 대학 연구소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교계 선지식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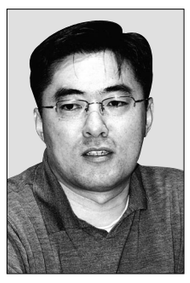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성철 스님, 불교근대화에 한국적 방법 제시"

황순일 동국대 교수, '퇴옹 성철' 세미나서 주장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조계종 소의경전이 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서구 불교학 전통을 한국적으로 해결하는 성철 스님에 근대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사진〉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퇴옹 성철의 불교전통 계승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성철 스님에게있어 중도는 서구 불교학 전통을 한국적으로 해결하는 한국불교의 근대화 과제였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중도와 한국불교의 근대성' 발표를 통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붓다에 의해서 써여졌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불교 문헌들에게 대한 근대적 문헌학적 연구성과의 결과"라며 "성철 스님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도를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보고 비록 역사적인 붓다가 직접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후대에 발전한 교리가 중도에 부답된다면 불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어 "백일법문은 불교교학 전체를 중도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불설로 확정하려는 하려는 성철스님의 간절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근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사이면서도 불교교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중도를 통한 불교사의 재해석을 통해 대승불교 경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한국적인 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대사회에서 선사의 산중담론 혹은 법어가 가지는 의미' 발표를 맡은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성철 스님이 근현대 강조한 것은 참스승으로 종교인들이 자리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발제에서 "성철 스님의 법어와 산중담론은 참스승, 불공하는 승려상을 강조했다"며 "스님은 불공은 밖에 나가서 해야 하며 남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참선과 화두 깨치기를 통한 수행의 결과를 회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사회의 정신적 측면을 담보하는 종교인이 스승으로서의 길라잡이로 기능한다는 승려상"이라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 탐구, 뇌 뿐만 아닌 몸 네트워크 봐야"

동국대 · 중앙승가대, '불교와 뇌과학' 국제학술대회

불교의 수행과 뇌의 변화를 탐구하는 뇌과학은 최근 불교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중앙승가대 산학협력단이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뇌과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마음 탐구를 뇌연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신경을 비롯한 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구마노 히로야키 일본 와세다대 인간과학학술원 임상심리학 교수는 뇌기능영상(fMRI) 촬영을 통해 오랜기간 명상을 한 이와 일반인의 뇌 활동을 비교했다.

구마노 교수는 "장기명상자의 경우 감정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서조절이 가능하다"며 "전두전야에 의한 제어가 아닌 자극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감정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마노 교수는 "머리 안에 있는 뇌만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몸 안의 광범위한 신경 네트워크까지 모두 뇌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도 "두뇌활동을 통해 마음을 탐구하는 유물론적인 뇌과학 연구에서 신경네트워크에서의 마음탐구로 연구 방법이 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뇌에 국한돼 풀지 못한 문제를 풀수 있다"고 말했다.

위에지엔동 중산대 철학연구소 교수는 '선 수행 관점에서 뇌과학 연구 성찰' 발표에서 "서양 중심의 뇌과학 연구가 자연과학 현상에만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선 수행을 심신건강을 위한 처방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에지엔동 교수는 "불교 수행은 현재 과학에 의해 연구되는 인지, 정서, 생리보다 훨씬 넓은 범주"라며 "뇌 활동 측정은 마음의 작용을 대변하지 못한다. 선 수행은 과학의 탐구영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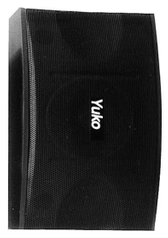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